



막으려는 학교, 넘으려는 사람들

코로나19로 학교가 정문을 제외한 모든 통로를 차단했지만 사람들이 후문의 좁은 틈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사진=장보경 기자)

비대면 수업 무기한 연장,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점이 기준

〈코로나19〉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중간고사는 출석시험을 제외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은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지난 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격하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글태총장은 서신을 통해 “확산세가 언제 누그러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경계단계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무처는 ▲중간고사 출석시험 미실시 ▲1학기 절대평가 적용 ▲실험·실습 수업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등을 공지했다. 추후 대면 강의로 전환되는 일정은 구성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중간고사는 출석시험이 아닌 과

1학기 중간고사 출석시험 미실시, “시험 방식은 교강사 재량”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해서 절대평가 적용

실험·실습 과목은 오는 20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학사지원팀은 “중간평가 방식은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며 “중간고사 실시여부 또한 교강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시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중간고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번 학기에 대해 중간고사 기간 이외에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희선(경영학 2018) 씨는 “온라인 시험의 경우 교재를 참고하거나 친구와 답을 공유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 했다. 또한 정 씨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공정성 보장에 도움

이 될 것”이라며 “여건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시험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세대학교는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1학기 중간고사 온·오프라인 시험을 모두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은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해 추천하지 않는다”며 “다만 새로운 학습관리시스템인 ‘e-campus’에선 온라인 시험을 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에도 대면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말고사 또한 출석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이 경우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강사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학기에 치러지는 시험에 한해선 절대평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강의가 연장됨에 따라 중간

고사 출석시험 실시가 어려워지고, 기말고사 시행도 불투명해졌다”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다른 학생과 비교 평가할 수 없어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절대평가의 기준 또한 교강사의 재량에 따를 예정이다.

실험·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대면 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학사지원팀은 “4월 20일부터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가 2주 더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이 제시한 ‘실험·실습 강화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범주 안에서 학생 소통 및 각 단과대학장의 승인이 이뤄져야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강의 전후 소독 방역 철저 ▲실험이나 실습 수업 시간 초과하지 않기 ▲개인위생 준수 ▲강의 전후 강의실 환기 ▲가능한 넓은 공간에서 사람 간 적정 거리 유지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실습 강화는 집중 이수기간(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을 통해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집중 이수기간이 계절학기 운영기간과 중복돼 계절학기 수강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계절학기는 학사 일정상 변경이 어려워 현행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실험·실습 보충 강의가 있는 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는 “비대면 수업 추가 연기에 따른 학생 대책 요구안”을 통해 수강신청 정정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수업의 질 및 계획을 확인한 후 강의를 정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정기간의 취지”라며 “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사지원팀은 “수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돼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강 정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추가로 수강학점 철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국제캠 비대위 인준 투표, 온라인 마감

문하령 기자 moonbyn@khu.ac.kr

지난 1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스페인어 학과, 원예생명공학과에서 비상대책위 원회(비대위) 정식 인준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이번 투표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일부 단위에 한해 이뤄졌다.

투표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다. 이때 투표자 신분은 경희대학교 웹메일 계정으로 확인했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며 3분

의 2 이상의 찬성(66.66%)을 받아야 인준된다. 지난 10일 모든 단위에서 투표율 50%를 넘겨 오는 13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 정식 인준은 지난 7일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2020학년도 학생회 재·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결정에 따른다. 지난달 30일 중선관위는 “코로나19에 의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선거 시행세칙」 1장 7조 3항에 따라 ‘비대면 강의 무기한 연장 시 선거 무산’을 의결했다. 이에 국제캠 총학생회 양성

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비대위는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선관위는 선거보다 비대위 정식 인준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재·보궐선거는 아직 논의의 중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오는 13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일정을 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병오 생물학과 명예교수 별세

원병오(생물학) 명예교수가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우리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혼카이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 남쪽에 새가 모두 450종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새로운 조류를 50여 종 발견하는 업적을 냈다. 또한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설립에 일조했다.



(사진=중앙일보DB)

알림

사령

명

〈서울뉴스팀장〉 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정기자〉 김창호(언론정보학 2019), 박창원(국제학 2018)